

† 마데테스는 제자라는 헬라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 마데테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 은석교회는



자신을 옳다고 여기는  
죄인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옳은  
사람됨을 지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생에  
실수는 있을지언정  
실패하는 인생은 없음을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 우리가 멍텅구리로 산다.

신 윤 식

오게 하신 분이 있음을 모르는 인간이  
가게 하시는 분이 있음도 모르는구나.  
오고 가게 하시는 분을 모른 채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니  
아하, 우리가 멍텅구리구나

올 때에 빈손으로 왔는데  
갈 때라고 무엇인들 가져갈까?  
빈손으로 오고 가는 것을 모른 채  
공연한 탐욕만 부리며 살아가니  
아하, 우리가 멍텅구리구나

세상에 지식이 있다하는 이들  
동서에 모든 걸 안다하되  
하늘에 계신 그 분을 모르고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사니  
아하, 그것도 멍텅구리구나

100년도 못사는 것이 인생인데  
천만년 죽지 않을 것처럼  
끝없이 걱정 걱정  
걱정만 하며 살아가니  
아하, 이것도 또한 멍텅구리라  
그리고 보니 우리가 멍텅구리로 산다.

대한예수교장로회

##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9-832-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mailto: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2.6

발행호수 제19권 6호

**유** 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 전문가이며 그 율법을 실천하는 일에도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일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그런

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유대 사회에 오셨습니다. 왜 유대사회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에게보다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오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 오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 즉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모든 것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으로 구원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실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모두 잘못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들의 신앙으로는 천국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했고 그 분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천국 기준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준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기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의 천국기준은 명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 교회의 신앙에서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대 교회의 신앙이 유대교적인 사고방식과 다르지 않다면 그 신앙은 천국으로부터 거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사회에 오셨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천국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모인다면 그것은 단지 종교인이 모임일 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

주일오전설교  
마 19:23-26

## 천국과 부자

리는 영생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영생의 문제로 모이신 것이 맞습니까? 하늘의 생명의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해서 모이셨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돌아 갑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이유였습니다.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인생의 전부로 여긴 것이 아니라 단지 성공적이고 완벽한 인생을 위해 필요한 한 부분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때문에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재물도 복된 인생을 위해 없으면 안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생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차지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지 않으면 우리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뭔가를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 선 청년과 다르지 않은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청년의 이야기는 예수님에게서 발길을 돌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재물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자기 한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은 끝까지 영생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해야 하는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선을 실천하는 그 의가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국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천국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6절)는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23,24절)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25절)라고 반응합니다.

제자들의 말은 '부자가 천국 못 간다면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느냐'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다는 것은 그만큼 충격적이었다

는 뜻입니다.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왜 충격적이었을까요? 당시 제자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유대사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자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자신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부자로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납득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에 놀라기는 합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신을 부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 자신을 부자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부자로 여기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예수님의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자가 아니었으면서도 매우 놀라면서 ‘누가 천국갈 수 있습니까?’라는 반응을 보인 것은 ‘부자’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자를 단지 돈이 많은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에게 부자, 즉 재물과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반대로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긴 것이 유대 사회의 사상입니다. 부자였던 욥이 모든 재산과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되자 그것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긴 것이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난은 단지 돈이 없다는 불편함과 함께 힘없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유대 사회에서 가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다는 부끄러움과 함께 멸시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은 단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천국 못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매우 놀랐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 한다면 그 외의 사람은 더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의미로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천국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모두 해체해 버리는 말씀이기에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에게도 그 같은 충격이 있었

을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설마 영생이 하나님의 복의 상징인 부를 포기하고 오히려 저주와 멸시의 상징인 가난의 길로 들어가는 것임을 상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놀라움과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있는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것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인 것입니다.

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사람은 마치 낙타와 같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낙타를 거론한 것은 아마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동물이 낙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문은 바늘귀처럼 좁습니다. 바늘귀는 막혀있지 않고 실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은 있습니다. 하지만 낙타는 자신의 몸집을 실처럼 작게 줄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사람이기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청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청년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영생까지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확대, 자기 충족이라는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을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낙타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 확대와 자기 충족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한 청년은 낙타처럼 거대한 몸집을 가진 존재로 천국 앞에 서서 그 몸집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천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라는 질문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어떤 선한 일, 어떤 율법의 실천으로도 낙타와 같은 거대한 인간의 욕망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이 곧 욕망을 줄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신을 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낙타로 천국 앞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심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미 낙타라는 거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내 자신을 바늘귀와 같은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작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에 대한 가능성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말씀에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기준은 아들을 믿는 것이고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자기 인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써 자기 백성을 아들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아들 안에서는 우리의 선에 대한 열심도 실천도 자량이 되지 못합니다. 단지 낙타와 같은 내가 바늘귀를 통과했다는 것으로 놀라워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할 뿐입니다.

물론 낙타와 같은 존재 그대로 바늘귀를 통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늘귀를 통과할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것이 곧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이 말은 낙타처럼 크게 부풀어 있는 우리의 욕망을 터뜨려 해체해 버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욕망이 터뜨려지는 경험이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있는 죄의 세력은 또 다시 그 욕망을 봉합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자신을 충족하고자 하는 낙타로 살아가게 합니다.

신자는 이러한 자기 실존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실감하며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의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기준이며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말씀과도 일치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가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베풀어주시는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부모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천국은 이처럼 '나는 할 수 없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12명 쯤 되는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마 우리 같은 성령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받지 못했는지 그도 아니면 모르겠다고 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합니다. 즉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답은 참으로 예상 밖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제자가 성령에 대해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성령에 대해 듣지 못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질문은 성령을 받았는지 확인해서 받지 못했으면 성령을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성령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고 신자는 성령의 도우심과 다스림 아래 있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한 그들에게 바울은 다시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자 '요한의 세례'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뿐이라는 것과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했다는 것, 또 믿으라고 한 그 분이 예수라는 것을 전하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보면서 대개 사람들은 안수를 받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 증거로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는 것에 초점을 두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마치 자신이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망언을 일삼고 설치는 사기꾼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1절을 보면 아볼로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을 보면 이야기 전개상 아볼로란 사람이 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라고 언급한 후에 성령에 대한 바울의 질문이 등장

주일오우설교  
행 19:1-7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4강 1.23일 설교)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18:24,25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성경은 구약 밖에 없었으니까 구약성경에 능통했다는 뜻이 됩니다.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는 것을 보면 아볼로는 단지 성경을 외우고 잘 아는 수준의 능통이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이해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칠 때 그 영향을 받은 자가 있게 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간 적이 있고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만난 12사람쯤 되는 제자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에 대해 듣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세례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1절에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아볼로는 성령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얼핏 '성령을 알지 못한 사람을 성령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겠지만 그러면 성령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성령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볼로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의 도를 배우고 예수에 관한 것을 알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볼로가 비록 성령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도 성령이 그에게 함께 했고 성령이 그로 하여금 주의 도를 깨닫게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성령을 알지 못한 아볼로였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다스림과 가르침 아래 있는지를 생각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만 치중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생명사건에 개입하신 영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알고 알지 못한 것과 상관없이 또한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해도 성령

은 존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굳이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는 것일까요?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즉 요한이 세례를 베풀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고 회개는 곧 요한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요한의 세례는 그 의미가 오해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 중심을 회개에 두고 있는데 회개의 의미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바로 정직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토대가 되는 참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든 회개든 모든 것은 신자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신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맞지만 그 변화는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의한 참된 회개며 신자에게 있어야 할 참된 변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변화해서 변화된 자신을 도구 삼아 예수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가 아닌 요한의 세례에 매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회개도 세례도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같은 사실을 전하기 위해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물음을 던진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의 물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전혀 불필요한 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인간의 개혁과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이며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주를 믿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당시처럼 방언과 예언을 해야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불을 받아야 성령 받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그러한 현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분이기에 때문에 성령이 임한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모든 소망과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생명에 마음을 두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는 곧 하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사망에 처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 사건이고 이 생명 사건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신자는 정직과 윤리적인 면에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복음의 본질과 상관없는 착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개혁되면서 도덕성과 정직성이 회복되어야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요한의 세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향하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신자는 자신의 도덕성과 정직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의에만 초점을 두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머물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사는가를 '성령을 받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 경에서 소선지서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목사도 소선지서를 본문삼아 설교하는 것이 다른 성경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선지서의 내용이 주로 죄와 심판에 대한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선지서에도 목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

수요일설교

학 1:1-15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1장 126일 설교)

있습니다. 학개와 말라기입니다. 학개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한 본문으로 최상이고 말라기는 십일조를 강조하기 위한 본문으로 최상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생활하다가 바벨론을 점령한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성전 건축이 자기들 형편에 너무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의 생활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들의 형편이 안정이 된 후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중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을 때 선지자 학개가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1절이 그 같은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유다는 자신들의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성전건축을 중단하고 미뤘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형편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합니다. 판벽한 집은 널판으로 장식한 호화로운 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어려움을 이유로 성전 건축을 미루는 것은 성전 건축에 마음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그들 마음이 여호와를 향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자기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은 초라한 집에 모시는 것이 옳으냐' 라며 교인들을 예배당 건축에 끌어 들이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6절의 내용은 예배당 건축에 소홀히 하는 교인들을 경고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안성맞춤입니다. 자기 집은 호화로우면서도 성전건축을 시기상조라며 미룬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해도 수입이 적고 먹고 마시고 입어도 풍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개 선지자의 말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이 교인들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 기록된 것

이 아닐뿐더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사람이 돈을 내든 내지 않던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성전건축을 위해 돈을 내지 않는다고 나무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자기 행위를 살피라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이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자신들에게서 살피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6절을 보면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을 것이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흠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삯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은 전대에 넣음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내용을 성전 건축에 마음이 없는 백성들에 대한 징계의 말씀으로 생각하지만, 징계라면 차라리 아예 수확이 없어야 하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도 없어야 하며 일꾼이 삯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6절의 내용은 징계의 의미는 아닙니다.

6절은 인간은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을 일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수확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더 주어지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작년엔 천만 원 번 사람이 올해 이전만원 벌었다면 더 주어진 천만 원으로 감사하고 행복해하기보다는 내년에는 더 벌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하게 될 뿐입니다. 결국 얼마를 벌어도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적은 것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것이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징계의 차원에서 수확을 줄이신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주어진 수확을 스스로 적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건축을 이루는 것을 책망한다기 보다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자기 형편을 이유로 성전건축을 미룬다면 그만큼 자신의 삶에 열심을 내고 물질적으로도 애썼던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과연 무엇입니까? 더 풍족해진 삶으로 인해 감사하고 행복을 누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말하자면 신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고서는 현실에서 무엇을 누리고 산다고 해도 만족과 평강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자기 삶에 마음을 둔 것이 곧 자기를 향한 욕망으로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것처럼 자신을 향한 욕망으로 사는 사람에게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만족과 평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것이 신자를 만족과 평강과 복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100을 가지고 만족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10을 가지고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비교할 때 누가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사람인가를 따져 보면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단지 제사하는 용도의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기를 위한 곳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공휼과 은혜를 아는 것보다는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의 삶의 풍성을 위해 애를 쓴다고 해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의 공휼과 은혜를 아는 바른 관계에서 얻어진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8절을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말하셨느니라”** 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금과 보석으로 장식하여 크고 화려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마 그때의 성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성전의 중요성은 무엇으로 지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 힘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재물이 풍성해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풍성해도 우리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며, 그 은혜가 우리를 평강과 풍성한 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15장

교 독 : 28(시63)

기 도 : 이성희 장로

찬 송 : 445장

성 경 : 마 19:23-26

말 씀 : 천국과 부자(124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305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3 장

축 도 : 설 교 자

##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04장

기 도 : 오현주 집사

찬 송 : 412장

성 경 : 행 16:6-10

말 씀 : 성령에 대한 불신앙(성령 6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379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학개 강해(3강)

## ■ 교회소식 ■

1. 예배후 제직회 모입니다.
2. 다음 주에 실시할 권사투표의 후보는 김옥분, 김옥자, 김윤정, 조길옥, 조순자, 최두임, 한옥섭, 황경영 집사님입니다.
3. 수련회 회비를 매월 적립하실 분은 장영대 집사님께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기도

오전 조규현 장로    오후 장동현 집사

## 성경은 분석 대상이 아니다 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결코 아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사 6:9)는 말씀처럼 성경은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듣고 깨달으며 보고 알 수 있는 자로 따로 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신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분석하면 뭐가 나올 것처럼 여긴다. 특히 신학자들과는 사람들이 그렇다. 성경을 문예적으로 분석하고, 문학적으로 분석하고, 인문학적으로 분석하면 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원어를 연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면 하나님의 뜻을 파헤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 이들은 원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성경을 기록한 당시 사람들의 언어였던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일 뿐인데 마치 그것이 특별한 하늘의 언어인 것처럼 여긴다.

복음은 언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복음이 언어로 전달되고 언어로 표현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언어의 뜻을 안다고 해서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가령 앞에서 언급한 사 6:9절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는 말을 이해 못할 사람은 없다. 국어를 공부하고 단어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조합할 수 있으면 초등학교도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것이 언어를 아는 인간의 한계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쪼개고 분석 한다고 해도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 수 없고, 믿음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를 연구하고 분석한다고 해도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한계 안에서만 생각할 뿐 참된 의미는 알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석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복종만을 요구한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한 것처럼 신자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는 위치에 있을 뿐이다. 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말씀 앞에서 자기 형편과 처지를 내세워 핑계를 댈 수가 없다.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것도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복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주신 복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신자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 그 앞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단어를 분석한다고 해서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을 예수님이라는 성경 단어를 분석하고 연구한다고 드러날까? 천만의 말씀이다. 평생을 연구하고 분석해도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